



## COASTAL PACIFIC 코스탈 퍼시픽

코스탈 퍼시픽 열차는 승객들에게 뉴질랜드의 거친 태평양 연안의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합니다. 기차는 세찬 소리를 내며 바람이 부는 바다와 숲으로 덮인 거대한 산이 만나는 태평양의 바로 옆을 달립니다. 코스탈 퍼시픽 열차는 정원의 도시인 크라이스트처치와 픽턴 항구 사이를 왕복 운행합니다.

여행객들은 크라이스트처치에서 픽턴까지의 전체 여정을 체험하거나, 해안 마을인 카이코우라 또는 말버러 와인 지대의 중심지인 블레넘에 내려서 관광을 하거나, 픽턴에서 인터아일랜드 페리를 타고 웰링턴까지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시닉 플러스를 선택하면 현지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식사가 제공됩니다. 현재 시닉 플러스 서비스는 코스탈 퍼시픽 열차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카이코우라까지

3시간 소요

풍부한 해양 포유류와 바닷새의 서식지로 유명한 카이코우라에는 여행객을 위한 다양한 액티비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래 관찰, 돌고래 만남, 물개 서식지 투어 등을 체험하고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며 산책을 즐겨보십시오.

### 크라이스트처치에서 블레넘까지

5시간 소요

블레넘 타운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와인 지대 중 하나입니다. 30개가 넘는 포도원과 다양한 와인 투어가 제공되는 이곳에서 여행객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유기농 농산물, 고급 요리, 맛있는 맥주로도 유명합니다.

### 코스탈 퍼시픽과 인터아일랜드 페리 연계

코스탈 퍼시픽 열차는 픽턴 항구와 수도인 웰링턴을 연결하는 인터아일랜드 페리와 연계됩니다. 오전에 웰링턴을 출발하는 인터아일랜드 페리를 타고 픽턴에 도착한 후 코스탈 퍼시픽 열차를 타고 크라이스트처치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전 7시에 크라이스트처치를 출발하는 코스탈 퍼시픽 열차는 오후에 픽턴에서 웰링턴으로 향하는 인터아일랜드 페리와 연계됩니다.

### 코스탈 퍼시픽 노선



### 시간표 (편도 5시간 30분 소요)

픽턴행		크라이스트처치행	
크라이스트처치	07:00	픽턴	13:40
카이코우라	10:00	카이코우라	16:26
픽턴	12:40	크라이스트처치	19:30

탑승 수속은 출발 20분 전에 마감됩니다.  
코스탈 퍼시픽 운행 스케줄:

날짜	운행일
2023. 12. 14 - 2024. 5. 5	주 7일
2024. 5. 6 - 2024. 9. 18	운행 중단
2024. 9. 19 - 2024. 12. 31	목요일 - 일요일
2025. 1. 1 - 2025. 4. 27	주 7일
2024. 4. 28 - 2025. 6. 30	운행 중단